

유통가, 친환경 경영 확대에도 포장폐기물 감축 미흡

롯데백, 보랭가방 회수 이벤트 대형마트, 친환경 포장재 도입 폐기물 절감 실질 노력 '소극적' '과대 포장, 명확한 규제 절실'

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의 일환으로 포장재 감축, 자원순환 촉진, 친환경 포장재 활용 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 과대포장 규제 등 포장재 폐기물 감축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유통 및 식품업계의 친환경 경영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포장재 감축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문제 및 폐기물 배출 증가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022년 추석부터 친환경·자원순환 프로그램 '보랭가방 회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명절 선물로 받은 롯데백화점 전용 정육·곶감·선어 보랭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 내 사은행사장에 반납하면, 보랭가방 1개당 '엘포인트(L.POINT)' 3000점을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 및 적립이 가능하다. 회수 보랭가방 수는 매 명절마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추석까지 총 5번의 명절 기간 동안 약 6만6000개의 보랭가방이 회수됐다.

이번 설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롯데백화점 전 점에서 보랭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회수된 보랭가방은 롯데백화점에서 업사이클링(Upcycling)해 새로운 곶감으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식료품 브랜드 '레피세리' 친환경 기프트 패키지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포장 소재를 모두 친환경 지류로 교체하고 불필요한 부자재를 줄인 일체형 패키지도 도입했다. 정육을 포장할 때 들어가는 아이스팩은 식물성 아이스팩을 사용한다.

다양한 가격대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며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대형마트도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먼저 롯데마트는 친환경 포장재 상품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늘 좋은 미네랄워터 ECO(2l*6)'는 비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상품으로 연간 약 1톤의 비닐 포장재를 줄이는 효과를 지닌다.

또 명절에는 R-PET(Recycled PET) 원단으로 제작해 재사용이 가능한 축산용 보냉백을 도입, 명절 기간 한번 쓰고 버려지는 축산 보냉가방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종이 포장재를 사용한 친환경 신선식품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 패키지로인 '페이퍼 보드'로 포장한 '척아이를, 부채살, 살치살' 상품을 해당역점을 포함한 11개 점에 출시해 판매했으며, 포장재 상단에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는 '에코캡'을 적용해 손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얼스팩(Earth Pact)'을 사용한 '리얼스 동물복지인증 계란'을 대형마트 최초로 출시해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과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난좌'를 친환경 소재로 만든 명절 선물세트 '농부의 자부심 GAP 사과·배 혼합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보통 스티로폼 및 합성수지로 만드는 '과일 트레이(난좌)'도 분리배출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설에는 동원 리침 G9호 선물세트를 플라스틱 뚜껑을 없앤 '노캡(No-Cap)' 상품으로 판매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ESG 경영을 강조하며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 도입 등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 일부 유통업계는 지난해 포장재 감축 및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과 관련한 새로운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시행 예정이었던 택

배 과대포장 규제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및 유통업계가 친환경 포장 및 포장재 감축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포장재 감축 등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또 상품마다 포장 규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과대포장 등 포장 폐기물 감축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대포장 문제 해소와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 실천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실천하고, 묶음 배송을 선택하며, 과대포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 등도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입장문 발표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 친환경 경영과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차별화 콘텐츠로 '쇼핑 트렌드' 선도

신규 브랜드·F&B 팝업 잇단 입점 '고객에 쇼핑의 즐거움 제공 노력'

광주신세계가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신규 브랜드를 잇따라 입점하고 줄서는 F&B 브랜드의 팝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쇼핑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특히 눈과 입을 사로잡는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1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 처음으로 본관 4층에 매장을 오픈한 '메종키즈네'는 프랑스 브랜드로 집을 뜻하는 '메종(maison)'과 일본어로 여우를 의미하는 '키즈네(kitsune)'의 합성어다. 메종키즈네는 지난 2008년 파리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서울 가로수길에서 문을 연 후 MZ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가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신규 브랜드를 잇따라 입점하고 줄서는 F&B 브랜드의 팝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쇼핑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또한 지난달 본관 7층에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피엘라벤'을 오픈했다. 피엘라벤은 스웨덴어로 '북극여우'를 뜻한다. 피엘라벤은 지난 1960년부터 시작된 스

웨덴 브랜드로 특유의 색감과 클래식한 디자인과 친환경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북유럽 특유의 유니크함을 갖춘 피엘라

벤은 일상복부터 트레킹, 등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시간을 타지 않는 디자인에 내구성이 좋은 의류로 유명하며 가방, 모자 등 액세서리도 인기가 높아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에 전국 웨이팅 맛집 팝업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SNS에서 '팝업맛집'으로 연일 이슈를 이어가고 있다.

연남동에서 시작된 치즈케이크 맛집인 '치플레'는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오는 4월23일까지 팝업을 진행한다.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치플레는 웨이팅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템의 팝업스토어와 신규 브랜드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23일까지 가정형 금고인 '루셀금고' 팝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중한 귀중품을 지킬 수 있는 루셀금고는 세련

된 디자인에 우수한 내화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사용목적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앞서 21일에는 글로벌 캠핑 라이프 브랜드인 '디오디(DOD)'를 오픈한다. 디오디는 도플갱어 아웃도어의 줄임말로 '아웃도어에 가장 최적화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오디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된 감성 캠핑 아이템 브랜드로 텐트 등 캠핑용품부터 의류까지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는 디오디를 호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캠핑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고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팝업부터 입점까지 성공해 지역의 쇼핑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다운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공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